

# 우리는 [학교폭력 방어자]입니다

모른 척하는 순간, 학교폭력은 더 커집니다.  
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 
친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주세요.



#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되어주세요.

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.  
관심은 힘이 되고, 용기는 변화를 만듭니다.

“지켜보지 말고, 지켜주세요.”



도움이 필요할때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!

 112 경찰청

 117 학교폭력신고센터

 삭제요청

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.police.go.kr)

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 #0117  안전 Dream(또는 검색어 117)  117센터 방문

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센터

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불법촬영물·합성물 삭제 신청

 02-735-8994(중앙) 055-244-9009(경남)  온라인비공개게시판 <https://d4u.stop.or.kr>